

# 뜨거운 관심 속 ‘전주국제영화제’ 성료

관객 7만명 돌파 · 티켓 판매율 81.8%... 57개국 224편 작품 상영, 전체 586회 중 448회 매진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지난 9일 폐막식을 끝으로 열흘간의 영화 대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 아래 4월 30일 개막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6개 극장 22개관에서 57개국 224편(해외 126편, 국내 98편)을 상영했다. 상영작 발표 때부터 화제를 모았던 ‘특별전: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 ‘다시, 민주주의로’와 더불어 골목상영, 전주씨네투어, 100 Films 100 Posters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영화제를 찾은 관객과 관광객에게 영화와 함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에 따르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체된 극장이 속에서도 많은 관객들의 발길을 이끌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폐막일 기준 작년 대비 3,000여 명 증가한 70,265명의 관객이 영화제를 방문했으며, 총 586회차 중 448회가 매진돼 상영관은 연일 영화제를 찾아온 관객들로 가득 찼다. 좌석 점유율 역시 작년보다 2.5% 상승한 81.8%로 마무리돼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또한 국내외 영화 전문가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장 역할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멤버르, 로카르노, 산세바스티안, 토론토, 마르델플라타 등 유수의 해외 영화제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램 라머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세계적인 거장 페드루 코스타 감독이 영화제를 방문해 마스터 클래스에서 차기작을 감독 발표하며 관객들과 영화 팬들을 설레게 했다.

‘특별전: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 ‘다시, 민주주의로’, ‘배창호 특별전: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 등 다양한 색상의 상영작과 프로그램 이벤트에 많은 관객이 참여했다. 마스터클래스, 영화로의 여행 등 프로그램 이벤트는 총 267회 진행되며 연이은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산업 프로그램인 ‘전주프로젝트’는 5월 4~6일 글로스터호텔 전주를 중심으로 3일간 진행됐다. 지난해 11~12월 공모



전주국제영화제가 지난 9일 폐막식을 끝으로 열흘간의 영화 대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에서 작년 대비 80% 증가한 336편 중 총 24편을 선정했으며, 이 중 17개 부문 18개 프로젝트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극장 바깥에서도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전주국제영화제 최초로 공식 초청한 TV 시리즈 ‘당신의 맛’의 감독과 배우들은 페스티벌존 J 스테이지에서 진행된 야외 토크 프로그램 ‘시네마, 담’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100 Films 100 Posters는 팔복예술공장, 남부시장 문화공관장 작당, 완판문화관, 시립인후도서관에서 열렸다. 특히 팔복예술공장과 문화공관장 작당에는 영화제 기간 동안만 작년 대비 약 4,000명 증가한 33,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관광거점도시 전주시와 협업하는 ‘전주씨네투어’도 작년에 이어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의 파트너 소속사인 저스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한 전주씨네투어X마중은 5회 진행한 ‘마

중초이스’가 전 회차 매진을 기록했으며, ‘마중토크’에는 1,100명의 관객이 참여했고, ‘마중전시’는 5월 8일 기준 약 2,000명이 방문했다. ‘전주씨네투어X음악’은 지역 향토극장 전주시네마타운에서 15회 진행됐으며, 그중 12회차가 매진됐다. 야경과 영화, 조선팔 공연을 함께 즐기는 ‘전주씨네투어X산책’은 총 7회 진행되어 약 2,900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이 프로그램은 영화제 폐막 이후에도 9월까지 전주 주요 명소에서 계속되며, 오는 16~17일 세병공원에서 영화제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전주 시민, 영화제 관객들과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축제로서의 면모도 돋보였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작년 44개였던 제휴업체를 올해 70개로 확대했으며, 기존 업체들의 영화제 기간 매출은 작년 대비 1.5~2배로 증가했다. 제휴업체 고객 중 80%가 영화제 제휴할인 대상자였다는 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장은성 기자

##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 참가출판사 모집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전자출판의 가치를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북 독서문화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제12회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상’의 참가 출판사를 오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상은 콘텐츠와 IT 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우수 전자출판물을 발굴하며, 전자출판 생태계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신청 자격은 최근 2년간(2023.6.1.~2025.5.31.) 국내에서 발행되어 유통 중인 모든 형식의 전자출판물 저작권을 소유한 출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완주문화재단,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최종 선정자 발표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완주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5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의 최종 선정자 10명(팀)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작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선정된 청년예술인 10명(팀)에게는 총 1,800만 원의 지원금이 교부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적 창작활동이 펼쳐진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김승후의 우리 전통 장례문화인 상여소리를 현대적 사운드로 재해석한 Project : 22(두루) △송은하의 비올라

중심 클래식 트리오 공연 △박혜원의 첼로와 재즈 기반 현대음악 연주 △김노을의 OST 및 가요 편곡 공연 ‘지역민을 위한 가을밤 콘서트’가 있다.

또한 △지현미의 명예퇴직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연극 △오은하의 피아노와 민요 결합 연주 음반 △진다정의 감정과 내면을 주제로 한 아트토이 실험 △문가영의 ‘하모니 - 가구와 조각 작’ △박현진의 참여형 전시 △김미림의 영화 ‘21세기 이별방식’ - 고립된 일상 속 투사된 초상’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원주=염재복 기자

##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자 모집

### 6월 14일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개최

가천길재단(설립자 이길여)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초여름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제11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대회는 전북 군산 출신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2014년 모교 군산 대아초등학교에 국내 최대수준의 ‘가천이길여도서관’을 건립·기증한 것을 기념해 2015년부터 개최됐다.

이후 매년 군산 은파호수공원에 학생과 가족 등 1만여 명이 참가하는 가족 축제 자리 잡았으며, 가천길재단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교육

청·군산시·군산시의회·군산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이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연령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4일부터 6월 11일까지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가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참가비는 없다.

대회는 6월 14일 군산 은파호수공원 일대에서 진행되며, 도화지는 대회 당일 현장에서 제공한다. 이때 저학년(유아부, 초등학교 1~3학년)과 고학년(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을 구분하여 배부된다. 참가자는 물감, 붓, 크레파스, 도화지 등 개인이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 ‘부안, 꿈꾸는 놀이터’ 한국동시축제

### 부안군문화재단, 17일 석정문화관·청구원 일원서 개최

부안군문화재단은 제3회 한국동시축제(이하 동시축제)를 오는 17일 부안을 석정문화관 및 청구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어린이와 가족, 문학인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로 대회, 체험, 공연, 전시 등 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안, 꿈꾸는 놀이터’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축제는 남녀노소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대회프로그램으로 △초등부, 청소년부, 성인부 동시 백일장 △가족 창작동시 낭송대회 △어린이 시인학교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동시문학을 저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가족형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동심놀이터 △아와 어린이 도서관 △동시인과 예술가가 운영하는 체험부스 △우리가족 프리마켓 △영유아 실내 놀이터 등이 동시를 직접 체험하고 가족간의 화합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연프로그램으로는 △동시 작가와 함께하는 동시낭독 동시낭독(김성민, 박혜선, 송선미, 송창우, 임복순, 유정희, 하송 시인 출연, 이안 시인 사회) △서커스 및 버블쇼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정성호와 미8군 군악대의 동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동시 백일장은 초등부, 청소년부, 성인부로 나뉘어 부안군수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상,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상 등 참가자 총 130명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남원시 관광협의회, ‘월광포차 시즌2’ 개최

남원시 관광협의회는 제95회 춘향제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7일간, 광한루원 일대에서 진행된 ‘월광포차’ 무대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월광포차’는 남원 고유의 야간 문화와 지역 예술을 결합한 복합문화형 야간 관광 프로그램으로, 지역 예술인 공연과 관광객 참여형 이벤트를 중심으로 구성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밤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오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주말 총 5회에 걸쳐 월광포차 시즌2가 이어질 예정으로, 임창정, 정동하, 박기영, 현진영, 이재영, 최재훈 등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가수들이 출연을 확정했으며,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연도 예정돼



있어 남원만의 독창적이고 풍성한 공연 콘텐츠로 꾸며질 전망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었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뿔마루와 난간을 둘었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궁궐에 따른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문화재청 제공>